

# CoMPAS 26

LG ARTS CENTER  
SEOUL

LG아트센터 서울  
2026년  
기획공연 시즌

현실을 압도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

2026.  
3.25-11.29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6

'Assembly Hall' by Kidd Pivot ©Michael Stobodan

LG아트센터 서울  
2026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 26

LG Arts Center SEOUL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26

2026.3.25 – 11.29

원트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with Wynton Marsalis  
3.25 Wed - 26 Thu  
LG SIGNATURE Hall  
VIP 180,000 R 140,000 S 100,000 A 60,000

라베크 자매 Two Pianos - 필립 글래스의 장 콕토 3부작  
'오르페', '미녀와 야수', '앙팡테리블'  
Philip Glass: Cocteau Trilogy by Katia and Marielle Labèque  
4.26 Sun  
LG SIGNATURE Hall  
VIP 120,000 R 90,000 S 70,000 A 50,000

LG아트센터 제작,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5.7 Thu - 31 Sun  
LG SIGNATURE Hall  
R 88,000 S 66,000

크리스탈 파이트 &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키드 피봇  
Crystal Pite &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Kidd Pivot  
6.5 Fri - 7 Sun  
LG SIGNATURE Hall  
R 100,000 S 80,000 A 60,000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발레 도르트문트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 Ballett Dortmund  
6.11 Thu - 14 Sun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190,000 R 160,000 S 120,000 A 90,000 B 60,000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앙 몽도 '피아노 피아노'  
Babx(David Babin) & Adrien Mondot's 'Piano Piano'  
10.15 Thu - 17 Sat  
U+ Stage  
All seats 60,000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10.23 Fri - 24 Sat  
LG SIGNATURE Hall  
All seats 60,000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연출 '로스코'  
'ROHTKO' Łukasz Twarkowski, Anka Herbut, Dailes Theatre Latvia  
11.13 Fri - 15 Sun  
LG SIGNATURE Hall  
R 110,000 S 80,000 A 50,000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  
'An Enemy of the People(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11.20 Fri - 29 Sun  
U+ Stage  
All seats 66,000

LG ARTS CENTER  
SEOUL



<b>LG아트센터 서울</b>	<b>LG Arts Center SEOUL</b>
<b>홈페이지 Website</b>	www.lgart.com
<b>전화 Tel</b>	1661-0017 화-금요일 10:30am – 6pm(월요일, 주말/공휴일 휴무) Tuesday to Friday, 10:30am – 6pm(Closed on Mondays, weekends and holidays)
<b>이메일 E-mail</b>	lgarts@lgart.com
<b>티켓박스 Ticket Box</b>	공연 시작 전 2시간 동안 현장 창구 운영 Open 2 hours before the performance until the start of the performance.

<b>SNS</b>	Instagram @lgartscenter
	YouTube @lgartscenter_official
	KakaoTalk LG아트센터

#### 오시는 길 Getting Here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LG아트센터 서울  
136 Magokjungang-ro Gangseo-gu, Seoul, Korea

9호선, 공항철도 마곡나루역(3, 4번 출구 방향의 지하통로에서 로비로 연결)

5호선 마곡역(3번 출구에서 700M, 도보 약 10분 소요)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주차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의 2026년 기획공연은 다음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협찬 Sponsored by



# LG Arts Center SEOUL

## LG아트센터 서울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 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LG연암문화재단에서 LG 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입니다. 2000년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서 개관한 LG아트센터는 동시대를 살면서 놓쳐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작품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 강서구 마곡으로 터전을 옮긴 LG아트센터는 'LG아트센터 서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관하여 풍부한 자연환경 속에서 확장된 예술적 경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G아트센터 서울은 창의적인 예술가와 열정적인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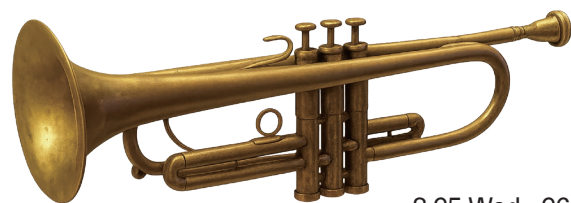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group LG in 2000 to make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After successfully running the Center for 22 years in Yeoksam-dong, Gangnam-gu, the Center was relocated and reopened in October 2022 in its new home in the Magok area, Gangseo-gu, as 'LG Arts Center SEOUL'. With its new construction designed by the world-famous architect Tadao Ando, LG Arts Center SEOUL is reborn as an open space that offers an expanded artistic experience surrounded by a rich natural environment. LG Arts Center SEOUL will continue to be the place where performing arts can be appreciated and where creative artists and passionate audiences can meet and communicate freely.





# March

원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3.25 Wed - 26 Thu

3

# April

라베크 자매 Two Pianos  
- 필립 글래스의  
장 콕토 3부작



4.26 Sun

4

# May

LG아트센터 제작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5.7 Thu - 31 Sun

5

# June

크리스탈 파이트 &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키드 피봇



6.5 Fri - 7 Sun

6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발레 도르트문트



6.11 Thu - 14 Sun

# October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앙 몽도  
'피아노 피아노'

10.15 Thu - 17 Sat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10.23 Fri - 24 Sat

10

# November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연출 '로스쿨'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



11.20 Fri - 29 Sun

11.13 Fri - 15 Sun

11



## CoMPAS 26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혜택

### ‘슬립노모어 서울’ 할인

이머시브 화제작 ‘슬립노모어 서울’ 오리지널 내한공연 단독할인 혜택!

- 공연 티켓 15% 할인(1인 최대 4매, 중복 할인 불가)
- 적용기간: 할인코드 발급일로부터 2026.6.28까지

### 베를린 필하모닉 ‘디지털 콘서트홀’ 무료 사용권

850개 이상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콘서트 영상을  
최고의 음질과 선명한 화질로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 사용기간: 무료 사용권 등록일로부터 30일
- 등록기한: 2026.7.31까지(기한 내 미등록 시 자동 소멸)

### ‘향기 136’ 온라인 판매처 할인

LG아트센터 서울의 시그니처 향 ‘향기 136’ 온라인 판매처 할인 혜택!

- ‘향기 136’ 디퓨저 10% 할인(1인 1개 한, 중복 할인 불가)
- 적용기간: 할인코드 발급일로부터 2026.11.30까지

CoMPAS 26 패키지 구매자 선착순 2,000명 대상

패키지 구매 회원의 휴대폰 번호로 혜택 제공 및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전송됩니다.  
(패키지 판매 마감 이후, 3월 예정)

## CoMPAS 26 예매 가이드

패키지 예매기간  
Package Booking Period  
1.20 Tue 2pm — 2.28 Sat

개별 공연 예매기간  
Single Ticket Booking Opens  
1.27 Tue 2pm —

\* 개별 공연 티켓 오픈 준비를 위해 1.27 Tue 1-2pm에는 패키지 예매가 중단됩니다.

#### [공연 관련]

✓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의 개별 티켓 오픈은 별도로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 [패키지 예매]

- ✓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의 패키지 좌석 지정은  
개별 티켓 오픈 전 ‘패키지 예매자 선예매 기간’ 동안 진행되며,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 ✓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은 선착순 800석만 패키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 ✓ 패키지 예매 직후 좌석 지정을 권장하며, 해당 공연의 등급 및 수량 매진 시 좌석 지정이 불가합니다.
- ✓ 패키지 구성은 공연별 동일 좌석 등급으로만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앙 몽도 ‘피아노 피아노’,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의 경우,  
전석 동일 등급으로 모든 패키지에서 하나의 좌석 등급이 선택됩니다.
  - R석 자유 패키지의 경우, 일부 공연을 VIP, LG SIGNATURE석으로 상향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A석 자유 패키지의 경우,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은 S석으로 구성됩니다.
  - B석은 전체 패키지에서 제외됩니다.

#### [패키지 취소 및 변경]

- ✓ 패키지는 전체 취소만 가능하며, 특정 공연을 선택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패키지의 전체 취소 및 구성 변경은 해당 패키지 내 첫 공연 관람일(회차)의 취소 마감 시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 패키지 구성 공연의 관람일(회차) 변경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 [기타 안내]

- ✓ 공연별 관람 연령(8세/12세/14세 이상)을 패키지 상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연별 잔여석 상황에 따라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으며,  
자유 패키지의 경우 해당 공연은 선택에서 제외됩니다.
- ✓ 패키지 예매 시 아트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불가합니다.

Package Ticket  
Booking Guide  
for Foreign  
Visitors





CoMPAS 26 패키지

CoMPAS 26 PACKAGES

자유 패키지	더블 패키지	Free Choice Package	Double Package
<p>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는 패키지</p> <p>5편 이상 선택 시 — 20% 할인 3편 이상 선택 시 — 15% 할인</p> <p>R, S, A석 동일 등급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R석 패키지는 VIP, LG SIGNATURE 등급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p>	<p>모든 연극·무용 작품을 섭렵할 수 있는 패키지</p> <p>해당 공연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크리스탈 파이트 &amp;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연출 '로스코'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p> <p>6편 모두 선택 시 — 25% 할인</p>	<p>Create your own season to your liking</p> <p>Save 20% when you select 5 or more shows Save 15% when you select 3 to 4 shows</p> <p>Packages must consist of the same seat grade (R, S, or A). However, R-Seat packages can be upgraded to VIP or LG SIGNATURE seats.</p>	<p>Explore the full lineup of theatre and dance in one package</p> <p>Enjoy a 25% discount for all 6 shows</p> <p>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Crystal Pite &amp;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ROHTKO' directed by Łukasz Twarkowski 'An Enemy of the People(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p>
SSS 패키지	<p>R석 선택 시      584,000원 ▶ 438,000원 '한여름 밤의 꿈' LG SIGNATURE 석으로 선택 시 614,000원 ▶ 460,500원</p> <p>S석 선택 시      472,000원 ▶ 354,000원</p> <p>A석 선택 시      392,000원 ▶ 294,000원 '바나 삼촌' S석 지정</p>	SSS Package	<p>R Seats 584,000 KRW ▶ 438,000 KRW When selecting LG SIGNATURE seats for 'A Midsummer Night's Dream', 614,000 KRW ▶ 460,500 KRW</p> <p>S Seats 472,000 KRW ▶ 354,000 KRW</p> <p>A Seats 392,000 KRW ▶ 294,000 KRW For 'Uncle Vanya', S seats will be offered.</p>
<p>26년 상반기를 풍요롭게 할 최고의 선택 Spring/Summer S석 패키지</p> <p>5편 모두 S석 선택 시 — 25% 할인</p> <p>해당 공연 윈튼 마살리스 &amp;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라베크 자매 Two Pianos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크리스탈 파이트 &amp;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p> <p>436,000원 ▶ 327,000원</p>		<p>Experience the essence of CoMPAS 26 with its first half lineup at a smarter price</p> <p>Enjoy a 25% discount on S-Seats for all 5 shows</p> <p>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with Wynton Marsalis Philip Glass: Cocteau Trilogy by Katia and Marielle Labèque 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Crystal Pite &amp;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p> <p>436,000 KRW ▶ 327,000 KRW</p>	



# CoMPAS 26 할인 DISCOUNTS

# 회원 혜택 MEMBERSHIP BENEFITS

## 조기에매 할인 Early Bird Discount

### — 2.28 Sat

15%

- 윈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with Wynton Marsalis
- 라베크 자매 Two Pianos  
Philip Glass: Cocteau Trilogy by Katia and Marielle Labèque
- 크리스탈 파이트 &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Crystal Pite &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

\*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의  
할인 정보는 추후 개별 티켓 오픈 시 공지됩니다.

### — 3.31 Tue

15%

-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앙 몽도 '피아노 피아노'  
Babx(David Babin) & Adrien Mondot's 'Piano Piano'
-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연출 '로스코'  
'ROHTKO' directed by Łukasz Twarkowski

20%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 청년 할인 Youth Discount

20% – 30%

2003.1.1 이후 출생자 본인 대상, 공연당 100매 한정  
For those born on or after January 1, 2003. Valid for the ticket  
holder only, limited to 100 tickets per performance.  
\* 공연별 할인율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10% – 25%

홈페이지 공연예술가전문가 등록자 본인 대상

\* 공연별 할인율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은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 회원가입 ▶  
MY LG아트센터 ▶ 회원정보 수정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할인

장애인 1-3급 | 동반 1인까지

50%

장애인 4-6급 및 국가유공자 | 본인만

30%

\* 티켓 수령 시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만 해당)'을 확인합니다.  
\* 휠체어 이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구조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해  
LG아트센터 서울 티켓박스(1661-0017)로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회원

우수회원이 되면 아트포인트 2배 적립, 주차/음료 쿠폰 제공 등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회 이상 공연 관람 or 100만 원 이상  
공연 티켓 구매 시, 다음 해 1월 우수회원으로 승급됩니다.

## 편리한 티켓 변경

PC와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 취소, 좌석 변경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조건(좌석등급 및 할인권종 등)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모바일 티켓

LG아트센터 서울 모바일 티켓을 이용하면 지류 티켓 발권 절차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LG아트센터 티켓' 채널 또는 홈페이지 예매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객석 입장 전까지, 홈페이지 예매내역에서 티켓 수령 방법  
(지류/모바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수수료 무료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 아트포인트

LG아트센터 서울 홈페이지에서 티켓 구매 시 일반회원 1%,  
우수회원 2%가 적립됩니다.

\* 기획, 대관공연 구분 없이 티켓 구매 시 적립되며,  
1,000원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30% 이상 할인, 패키지 구매 시에는 적립이 되지 않으며,  
일부 공연의 경우 적립·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 기준 2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기프트카드

LG아트센터 서울의 특별한 공연 관람 경험을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 권종: 10만 원권, 50만 원권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증번호 등록을 거쳐 사용 가능합니다.  
✓ 실물 카드 수령을 위해 현장 구매만 가능합니다.  
✓ 방문 전 전화 문의(1661-0017) 바랍니다.



재즈의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의 이름  
윈튼 마살리스

**Wynton  
Marsalis**



©LawrenceSumling

세계가 사랑하는 전설의 피아노 듀오  
라베크 자매

**Katia and  
Marielle  
Labèque**



©Cinthia Nicoletti



©양손프로젝트

동시대의 새로운 감각을 여는 연출가

손상규

**Son  
Sa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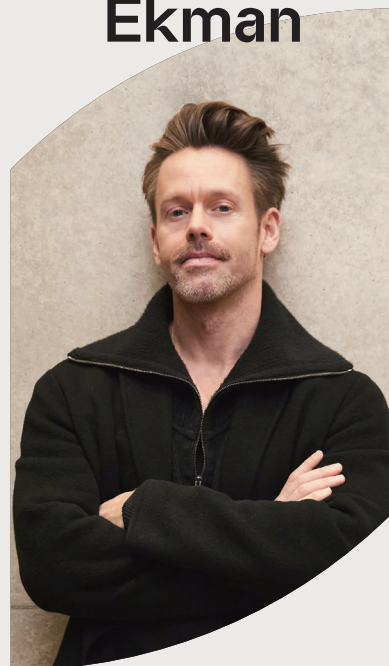
©Anoush Avtar

가장 드라마틱한 컨템포러리 안무가  
크리스탈 파이트

**Crystal Pite**

압도적 스펙터클의 아이콘  
알렉산더 에크만

**Alexander  
Ekman**



새로운 예술 언어를 향한 콜라보레이션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앵 몽도

**Babx  
& Adrien  
Mondot**



©Adrien M & Claire B



©Beatrice Boygas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멀티플레이어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Łukasz  
Twarkowski**



우리 시대 판소리 고유명사  
이자람

**Lee Jaram**

비움으로 완성하는  
연극 미학의 결정체  
양손프로젝트

**Yangson  
Project**





# 현실을 압도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

---

크리스탈 파이트 &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키드 피봇  
Crystal Pite &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Kidd Pivot  
6.5 Fri - 7 Sun

---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발레 도르트문트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 Ballett Dortmund  
6.11 Thu - 14 Sun

---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연출 '로스코'  
'ROHTKO' Łukasz Twarkowski, Anka Herbut, Dailes Theatre Latvia  
11.13 Fri - 15 Sun



# 크리스탈 파이트 & 조너선 영의 '어셈블리 홀', 키드 피봇

Crystal Pite &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Kidd Pivot

6.5 Fri - 7 Sun

Fri 7:30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R 100,000 S 80,000 A 60,000

관람연령 | 12세 이상 (2015년생부터)

소요시간 | 1시간 30분 (휴식 없음)

Age Guidance | 12+ (born in 2015 or earlier)

Duration | 1h 30min with no interval

\*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어떤 글은 한 문장만으로도 작가를 짐작하게 하듯, 어떤 움직임은 단 몇 개의 동작만으로도 안무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LG아트센터가 오랜 시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온 안무가, 크리스탈 파이트가 바로 그런 아티스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작품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왔다.

유럽 평단을 휩쓴 화제작이자, 크리스탈 파이트의 안무 세계를 가장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최신작 '어셈블리 홀'이 한국 무대에 오른다.







## 2025년 올리비에상 최우수 무용작품상에 빛나는 크리스탈 파이트 최신작

드디어 오랜 기다림이 끝난다. 2020년 내한 예정이었던 '검찰관'이 팬데믹으로 무산된 후, 무려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가장 드라마틱한 컨템포러리 댄스의 아이콘이자, "무용계의 최첨단(The Telegraph)"으로 불리는 안무가 크리스탈 파이트가 최신작 '어셈블리 홀'로 한국을 찾는다. 2023년 캐나다 밴쿠버 초연 이후, 2025년 올리비에상 최우수 무용작품상(Best New Dance Production)을 수상한 화제작으로, 그녀가 만들어내는 극한의 피지컬리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LG아트센터 서울 공연은 크리스탈 파이트가 이끄는 컴퍼니 '키드 피봇'의 첫 내한 무대로, 오랜 시간 그녀의 작품을 기다린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 중세의 전설만큼이나 멀어져버린 공동체를 만나는 곳, 어셈블리 홀

'어셈블리 홀'은 크리스탈 파이트의 주요 히트작들을 함께 만들어온 극작가 조너선 영과 협업한 작품으로, 가장 연극적인 무용이라 할 수 있는 그녀의 안무 세계를 또렷하게 보여준다. 낮은 단상과 붉은 커튼, 높은 벽에 걸린 농구 골대가 있는 무대는 지극히 평범한 마을 회관, '어셈블리 홀'이다. 이곳에는 오랜 세월 중세 재현 축제를 열어온 '자애와 보호의 기사단', 즉, '중세 오타쿠 클럽'이 모여 있다. 점점 줄어드는 회원 수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재정 적자 속에서, 클럽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다. 절망이 짙게 드리운 순간, 이 낡은 마을 회관에서 고대의 힘이 깨어나고, 회원들은 축제를 넘어서는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 온라인을 통해 넓고 알게 연결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관계를 지속하는 공동체란 마치 중세 기사단의 전설처럼 멀게 느껴진다.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크리스탈 파이트는 공동체 축제의 언어를 빌려 이 질문을 집요하게 탐구한다.

After the 2020 tour of *Revisor* was cancelled due to the pandemic, this long-awaited opportunity to witness Crystal Pite's work finally returns six years later. Crystal Pite—one of the most dramatic voices in contemporary dance, described by *The Telegraph* as "the cutting edge of dance"—comes to Korea with her latest work, *Assembly Hall*.

Premiered in Vancouver in 2023 and awarded the 2025 Olivier Award for Best New Dance Production, the work showcases the intense physicality that defines Pite's choreography. The performance at LG Arts Center SEOUL is especially significant as it marks the Korean debut of Kidd Pivot, the renowned company led by Crystal Pite.

## CRYSTAL PITE & JONATHON YOUNG'S 'ASSEMBLY HALL', KIDD PIVOT

"춤이 다른 어떤 예술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한다는 크리스탈 파이트의  
확고한 믿음은 그를 유일무이하게 만든다."

The Guardian





LG SIGNATURE 와 함께하는

# 알렉산더 에크만의 '한여름 밤의 꿈' 발레 도르트문트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  
Ballett Dortmund

6.11 Thu - 14 Sun

Thu-Fri 7:30pm / Sat 2pm & 7pm / Sun 3pm

LG SIGNATURE Hall

LG SIGNATURE 190,000 R 160,000 S 120,000 A 90,000 B 60,000

\* 6.12 Fri 7:30pm & 6.13 Sat 2pm 공연은 전관 판매로 매진되었습니다.

관람연령 | 12세 이상 (2015년생부터)

소요시간 | 2시간 (휴식 1회 포함) \* 1막 40분, 휴식 30분, 2막 50분

Age Guidance | 12+ (born in 2015 or earlier)

Duration | 2h with one interval \* Act 1-40 min, interval-30 min, Act 2-50 min

\* 공연 중 섬광 조명, 포그를 사용합니다.

지난해 관객들을 가장 열광시킨 작품을 꼽으라면, CoMPAS 25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압도적인 군무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강렬한 에너지는 충격을 넘어 많은 이들의 '인생작'을 새로 써 내려갔다. 지금 세계 무용계의 중심에 에크만이 있음을 확실히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열기와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 모습을 드러낸다.





## 2025년 최고의 화제작 '해머'의 알렉산더 에크만이 돌아온다

알렉산더 에크만은 파리 오페라 발레, 로열 스웨덴 발레,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등 세계 최정상급 무용단들이 앞다투어 문을 두드리는, 지금 세계 공연예술계가 가장 탐내는 대담한 창작자다. “공연은 살아 있어야 하며, 놀라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증명하듯, 지난해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선보인 ‘해머’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오감을 자극하는 연출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폭발적인 리뷰들은 빠르게 SNS를 장악했다. 한국 관객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던 충격적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환상적인 스펙트럼을 펼치는 또 다른 대표작이 상륙한다. 2015년 로열 스웨덴 발레 초연 당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 경험”,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극찬을 받으며 오늘의 에크만을 있게 한 작품, 바로 ‘한여름 밤의 꿈’이다.



©Leszek Januszewski

## ALEXANDER EKMAN'S 'A MIDSUMMER NIGHT'S DREAM' BALLET DORTMUND

###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북유럽 한여름 밤의 몽환적인 축제

에크만의 대규모 현대 발레극 ‘한여름 밤의 꿈’은 여름의 정점에 열리는 스웨덴의 하지 축제와 결합되며 ‘꿈’이라는 감각의 세계로 무한히 확장된다. 이 작품의 백미는 무대를 가득 채운 건초 더미 위에서 폭발하는 에너지와 혁신적인 안무로, 시작과 동시에 관객을 에크만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공중에 매달린 침대, 허공을 가로지르는 물고기, 거꾸로 매달린 나무까지. 궁극의 미감을 선보이는 초현실적인 비주얼 위로 미카엘 칼손의 음악과 북유럽의 분위기를 담은 라이브 보컬이 더해지며 무대는 어느새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한여름 밤의 몽환적인 축제로 변모한다. 그리고 이 환상의 세계는 독일 현대 발레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는 ‘발레 도르트문트’가 구현해낸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화려한 테크닉과 밀도 높은 군무를 선보이는 이들의 첫 내한 무대는 에크만의 독보적인 상상력을 만나 강렬한 몰입의 시간을 선사한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며 마치 꿈속을 유영하는 듯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는 이번 작품은 또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도 좋다.

Alexander Ekman is one of today's most sought-after and daring creators in the global performing arts scene, courted by the world's leading dance companies including Paris Opera Ballet, the Royal Swedish Ballet, and Nederlands Dans Theater. Presented at LG Arts Center SEOUL last year, *Hammer* sold out all performances, captivating audiences with its overwhelming scale and sensory-driven staging, while explosive reviews quickly took over social media.

Before the aftershock of that electrifying energy has even faded for Korean audiences, another signature work that showcases Ekman's fantastical spectrum arrives on stage. Premiered in 2015 by the Royal Swedish Ballet to widespread acclaim, the work that helped define Ekman as the artist he is today returns—*A Midsummer Night's Dream*.

“지금 세계 발레계에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알렉산더 에크만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The Guardian



©Leszek Januszewski



©Leszek Januszewski



#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연출 '로스코'

'ROHTKO' Łukasz Twarkowski, Anka Herbut, Dailes Theatre Latvia

11.13 Fri - 15 Sun

Fri 7pm / Weekend 3pm

LG SIGNATURE Hall

R 110,000 S 80,000 A 50,000

관람연령 | 14세 이상 (2013년생부터)

소요시간 | 3시간 55분 (휴식 1회 포함) \* 1막 105분, 휴식 20분, 2막 110분

Age Guidance | 14+ (born in 2013 or earl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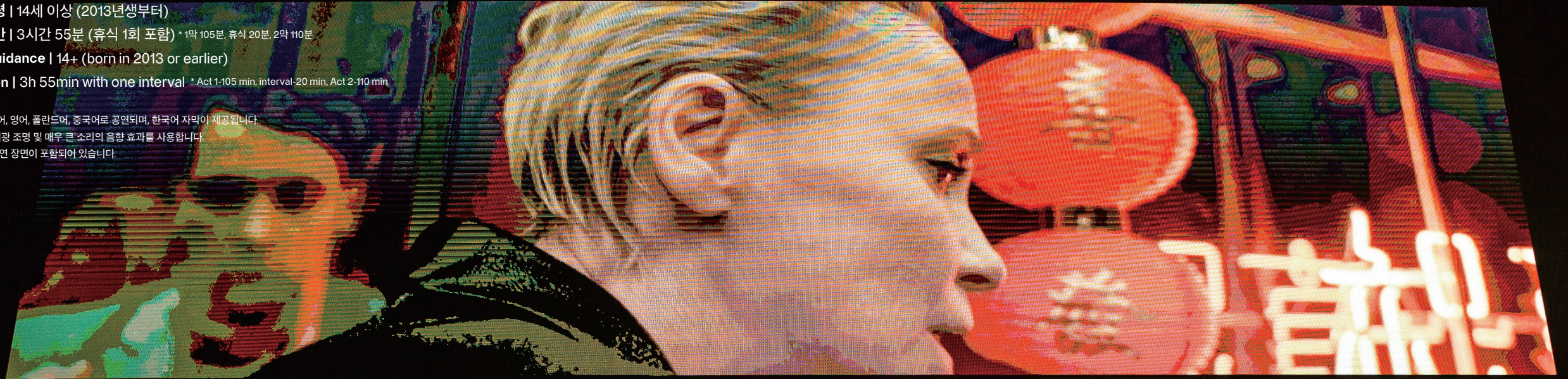
Duration | 3h 55min with one interval \* Act 1-105 min, interval-20 min, Act 2-110 min

\* 라트비아어, 영어, 폴란드어, 중국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 공연 중 섬광 조명 및 매우 큰 소리의 음향 효과를 사용합니다.

\* 다수의 출연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화의 시대에 태어난 연극이 스크린의 시대를 넘어 디지털과 AI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제대로 감각하게 하는 작품이 나타났다. 다양한 예술 장르의 언어를 과감하게 결합하는 폴란드의 차세대 연출가,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의 4시간 대작 '로스코'. 강렬한 네온 색감의 영상미, 심장까지 전해지는 비트,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카메라맨, 그 위를 비행하는 철학까지. 이들이 겹겹이 포개어지는 순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지적인 스릴러(The Guardian)”가 시작된다.





## 내러티브의 경계를 부수는 멀티플레이어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

현대 유럽 연극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연출가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는 연극과 설치 미술, 영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색다른 만남을 주선하는 멀티플레이어다. 그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의 직선적인 이야기 구조를 파괴하는 독특한 연극 기법을 구축해 왔고, 끝없이 승하강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처럼 다이내믹하게 관객을 이끈다. 특히 영화 촬영장을 연상시키는 방대하고 정교한 세트 위에 실시간 영상을 배치해 배우를 클로즈업하는 연출 방식은 무대 위 장면과 그 이면을 해부하듯 보여준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연극을 기다려 왔다면 이제 우카시 트바르코프스키가 설계한 낯설고 매혹적인 미로 속으로 몸을 던져 볼 차례다.

## 21세기 미술계 최악의 사기 사건에서 출발한 질문

우카시의 작품 중에서도 대작으로 꼽히는 연극 '로스코'는 미술계에 충격을 안긴 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강렬한 색채로 송고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자아내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는 작품이 경매에 오르면 '역대 최고가 갱신'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장식하는 '값비싼 작가'다. 그런 그의 그림을 둘러싸고 미술계 역사상 최악의 사기 사건이 벌어진다. 2004년, 뉴욕의 명성 높은 노들러 갤러리를 통해 로스코의 한 작품이 830만 달러(약 120억 원)에 낙찰되지만, 몇 년 뒤 이 그림은 사실 중국의 한 수학교사가 그린 위작임이 밝혀진다. 수많은 예술 애호가와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속인 완벽한 작품이었지만, 위작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림을 보며 느꼈던 감동마저 가짜가 되어 버렸다. '진짜'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 연극은 해당 위작이 단순 카피가 아닌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원본'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며,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묻는다.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의 '원본'을 사고파는 NFT의 시대, 작품은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무대 위에서 이 질문의 핵심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Łukasz Twarkowski is a rising director in contemporary European theatre, known for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atre, installation art, and film to create unconventional encounters with audiences. By drawing on multiple artistic disciplines, he has developed a distinctive theatrical language that breaks away from linear storytelling. His signature use of large-scale, film-set-like environments combined with live video close-ups reveals both what unfolds on stage and what lies beneath it. His four-hour epic *ROHTKO* explores one of the art world's greatest frauds surrounding the paintings of abstract expressionist Mark Rothko, posing a powerful question about what constitutes true art.

“현대 무대 기술의 정점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시청각적 실험”  
The Stage



©Arturs Pavlavs



'ROHTKO'  
Łukasz Twarkowski, Anka Herbut,  
Dailes Theatre Latvia

“눈과 귀를 매혹시키는 환영으로 가득 찬 스펙터클.  
작품을 통해 '진짜'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Libération

©Arturs Pavlavs



# LG아트센터 제작 프로덕션

---

LG아트센터 제작,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5.7 Thu - 31 Sun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10.23 Fri - 24 Sat

---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  
'An Enemy of the People(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11.20 Fri - 29 Sun



# LG아트센터 제작, 손상규 연출 '바나 삼촌'

## 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5.7 Thu - 31 Sun  
Tue-Fri 7:30pm / Weekends 3pm \* 단, 5.20 Wed 3pm  
LG SIGNATURE Hall  
R 88,000 S 66,000

동시대의 새로운 감각을 여는 연출가  
손상규의 시선으로 만나는 '바나 삼촌'

“우리는 살아가야 해.” 평생을 땅과 가족, 그 안의 질서에 헌신해 온 바나의 외침이 여러 세대를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가깝게 남아 있다. 시간을 초월하는 안톤 체호프 특유의 리얼리즘을 집약한 희곡 '바나 삼촌'은 어느 순간 일상의 궤도를 벗어난 평범한 인물의 내면 드라마를 그려내며, 그 어떤 웅장한 영웅 서사보다도 더 깊은 잔흔을 남기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2026년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시리즈의 일환으로 무대에 오를 '바나 삼촌', 고전 명작을 새로운 감각으로 깨워낸 '벚꽃동산', '헤다 가블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의 연출은 2024년 연극 '타인의 삶'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입증하며, 성공적인 연출 데뷔를 선보인 손상규가 맡는다. 화려한 장치보다는 이야기와 배우 본연의 색을 극대화하는 '손상규 스타일'은 고전 작업에서도 단연 빛을 발한다. 배우로 오랜 시간 활약해온 그는 그동안 대부분의 작품을 직접 번역·각색하며, 텍스트와 배우, 무대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폭넓은 연출 감각을 쌓아왔다. 시대와 맞지 않는 언어와 설정은 과감히 덜어내면서도 유머와 긴장감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지금 이곳의 관객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온도를 정교하게 조율한다. 연출 데뷔작에서 "연출가' 손상규 시대의 개막"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면, 이번 대극장 공연은 그의 연출 세계가 얼마나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관람연령 | 12세 이상 (2015년생부터)  
Age Guidance | 12+ (born in 2015 or earlier)  
\* 신작 특성상 소요시간, 출연진 등 세부 정보는 추후 공개됩니다.

Anton Chekhov's *Uncle Vanya* closely follows the inner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have drifted off the path of everyday life, capturing the moment when subtle emotional tremors swell into a powerful resonance. The work will be presented in 2026 as part of the theatre series produced by LG Arts Center SEOUL. The production is directed by Son Sangkyu, who demonstrated both artistic excellence and box-office success with *The Lives of Others* in 2024. By stripping away spectacle and intensifying the density of both text and performance, his direction promises a reimagined and richly expanded theatrical vision on the grand stage.

“연출가 손상규 시대를 연다.”  
한국일보

LG ARTS CENTER  
PRODUCTION  
'UNCLE VANYA'



#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 Lee Jaram Pansori 'Snow, Snow, S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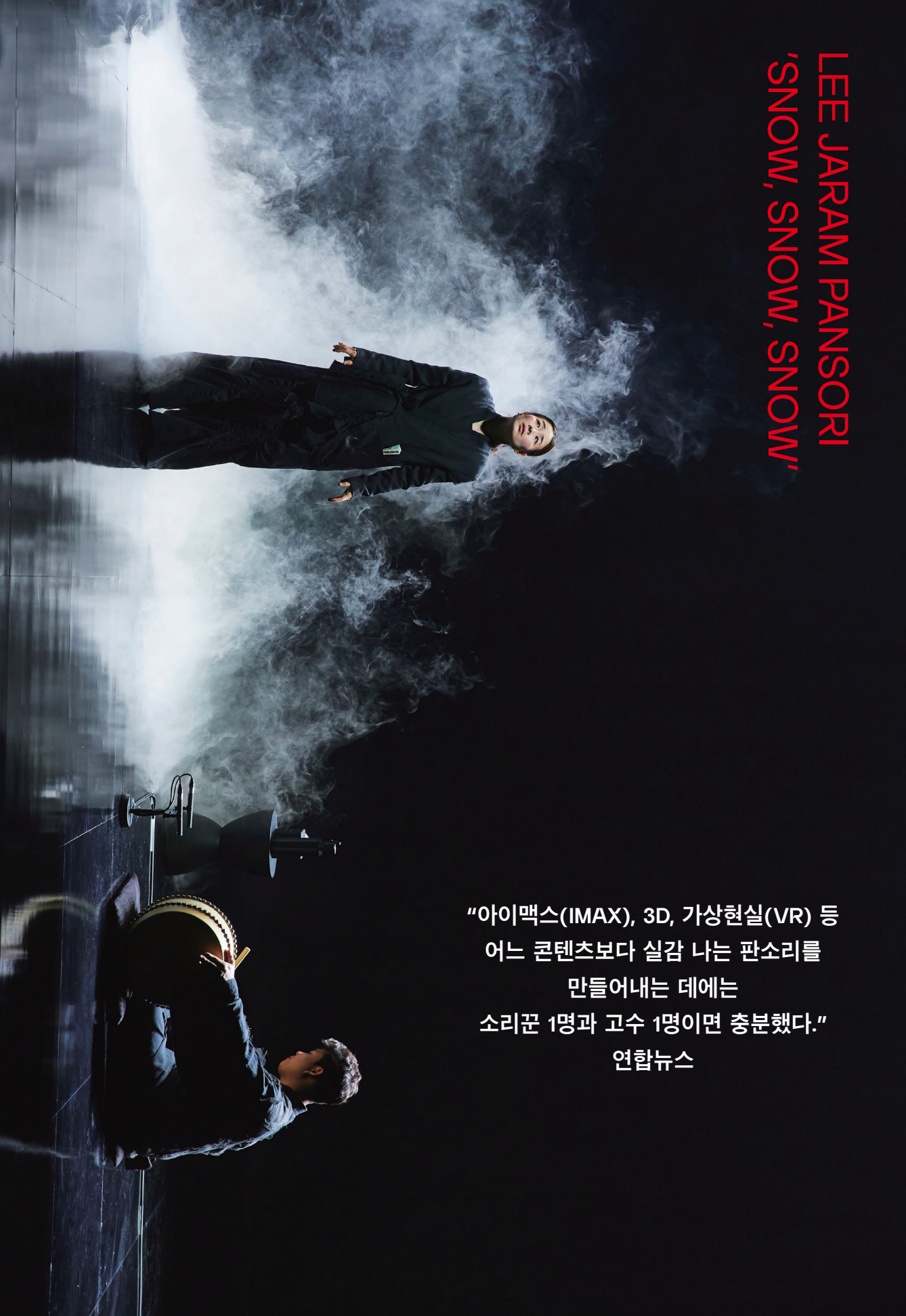
10.23 Fri - 24 Sat	관람연령   12세 이상 (2015년생부터)
Fri 7:30pm / Sat 4pm	소요시간   1시간 50분 (휴식 1회 포함)
LG SIGNATURE Hall	Age Guidance   12+ (born in 2015 or earlier)
All seats 60,000	Duration   1h 50min with one interval
* 공연 중 포그를 사용합니다.	

### 더 광활한 설원에서 만나는 우리 시대 판소리 대명사

2025년, 오랜만에 선보인 신작 판소리 '눈, 눈, 눈'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이자람이 왜 오늘날 판소리의 가장 독보적인 존재인지 다시금 증명했다. 부채 하나와 북 하나만으로 무대를 한겨울 러시아의 설원으로 바꾸어 놓았던 이 작품은 톨스토이의 단편 '주인과 하인'을 바탕으로 숲을 사기 위해 눈보라 속 길을 나선 상인 바실리와 일꾼 니키타의 하룻밤 여정을 그린다. 명실공히 우리 시대 판소리의 대명사인 이자람은 이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되살리며, 인물들을 더 이상 먼 러시아의 존재가 아닌 불안과 욕망, 책임의 갈림길에 선 오늘의 우리로 불러냈다.

LG아트센터 서울 초연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의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 화제작은 2026년 대극장 무대로 장소를 옮겨 한층 더 넓은 스케일과 깊은 몰입을 선사한다. 빛과 안개가 겹겹이 쌓인 무대는 더욱 광활한 설원으로 확장되고, 관객들은 작은 썰매에 몸을 싣고 소리꾼, 고수와 함께 눈발을 가로지르게 된다. 한밤의 설원 위, 극한의 눈보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Premiered in 2025 to universal critical acclaim and sold-out audiences, Lee Jaram's *Snow, Snow, Snow* once again affirmed why she stands as the most singular and unrivaled voice in contemporary pansori. Armed with only a fan and the rhythmic beat of a drum, Lee transforms the stage into the frozen plains of a Russian winter. Drawing on Leo Tolstoy's short story *Master and Man*, the piece portrays a single night's journey of Vasili, a merchant seeking to buy a forest, and his laborer Nikita as they set out into a snowstorm. Lee Jaram brings the story into the present tense, reimagining the characters not as distant figures from Russia, but as reflections of ourselves—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anxiety, desire, and responsibility.



“아이맥스(IMAX), 3D, 가상현실(VR) 등  
어느 콘텐츠보다 실감 나는 판소리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소리꾼 1명과 고수 1명이면 충분했다.”  
연합뉴스



# 양손프로젝트 신작 '민중의 적(가제)'

## 'An Enemy of the People(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11.20 Fri - 29 Sun  
Tue-Fri 7:30pm / Weekends 3pm  
U+ Stage  
All seats 66,000

공동제작. LG아트센터 X 양손프로젝트

거침없는 사회문제극으로 돌아온  
양손프로젝트의 두 번째 입센

2025년 '유령들'로 '입센 3부작'의 시작을 알린 양손프로젝트가 그 두 번째 작품으로 '민중의 적(가제)'을 선보인다. 번역체 대사를 과감히 걷어낸 현대적인 각색, 미니멀한 무대 위에서 온전히 인물에 집중하는 연출, 모든 캐릭터를 오가는 세 배우의 밀도 높은 연기까지. '유령들'을 통해 비움으로 완성하는 특유의 연극 미학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면, 2026년에는 '민중의 적'을 선택하며 입센 시리즈의 스펙트럼을 한층 더 확장한다.

'민중의 적'은 사회문제를 다룬 입센의 희곡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비판의 언어를 담아낸 작품이다. 낯선 문제의식 속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으며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세계 무대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온천수 오염 사건을 출발점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언론과 지역사회 그리고 이를 공론화해 바로잡으려는 스톡만 박사의 충돌이 첨예하게 맞선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유효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이 급진적인 희곡이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양손화'되어 동시대의 무대에 호출될 지 기대해도 좋다.

관람연령 | 12세 이상 (2015년생부터)  
Age Guidance | 12+ (born in 2015 or earlier)  
\* 신작 특성상 소요시간 등의 세부 정보는 추후 공개됩니다.

After launching its Ibsen Trilogy with *Ghosts* in 2025, Yangson Project presents *An Enemy of the People* (working title) as its second work. While *Ghosts* featured a contemporary adaptation that boldly stripped away translated dialogue, minimalist staging focused on characters, and the dense performances by three actors shifting between all roles, the 2026 production takes a markedly different direction, expanding the trilogy's spectrum. One of Ibsen's most fiercely critical and widely staged plays around the world, *An Enemy of the People* combines sharp social insight with wit, offering a new vantage point through Yangson Project's unique reinterpretation.



“화려한 무대 장치 없이, 배우의 역량만으로  
극을 이끄는 방식은  
연극 본연의 힘을 보여준다.”  
한국경제

'AN ENEMY OF THE  
PEOPLE(WORKING TITLE)'  
BY YANGSON PROJECT



# LG아트센터 제작 사이먼 스톤 연출 '벚꽃동산'

LG Arts Center Production  
'The Cherry Orchard' by Simon Stone

2024년 초연 당시 4만 석의 객석을 매진시키고  
세계 각국의 프리젠티어로부터 앞다투어 러브콜을 받은  
LG아트센터 제작 연극 '벚꽃동산'.

2025년 부산을 시작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연이어 투어하며  
초연의 뜨거운 반응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6년에는 호주와 뉴욕까지 그 무대를 확장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K-theatre의 저력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킨다.

뉴욕 NEW YORK

2026.9.14-26

파크 애비뉴 아모리-웨이드 톰슨 드릴 홀  
The Park Avenue Armory-Wade Thompson Drill Hall

애들레이드 ADELAIDE

2026.2.27-3.1

페스티벌 씨어터

Festival Theatre

\*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개막작

싱가포르 SINGAPORE

2025.11.7-9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  
Esplanade Theatre

홍콩 HONG KONG

2025.9.19-21

홍콩컬처럴센터 대극장  
Hong Kong Cultural Center, Grand Theatre  
\* 아시아+ 페스티벌 개막작

부산 BUSAN

2025.3.13-15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Busan Citizen's Hall, Main Theater

서울 SEOUL **Premier**

2024.6.4-7.7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LG Arts Center SEOUL, LG SIGNATURE Hall

Touring



# 세계 무대가 증명한 음악적 만남

---

윈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with Wynton Marsalis  
3.25 Wed - 26 Thu

---

라베크 자매 Two Pianos - 필립 글래스의 장 콕토 3부작  
'오르페', '미녀와 야수', '앙팡테리블'  
Philip Glass: Cocteau Trilogy by Katia and Marielle Labèque  
4.26 Sun

---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앵 몽도 '피아노 피아노'  
Babx(David Babin) & Adrien Mondot's 'Piano Piano'  
10.15 Thu - 17 Sat



# 윈튼 마살리스 &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with Wynton Marsalis

3.25 Wed - 26 Thu

Wed-Thu 7:30pm

LG SIGNATURE Hall

VIP 180,000 R 140,000 S 100,000 A 6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9년생부터)

Age Guidance | 8+ (born in 2019 or earlier)

이름만으로도 재즈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들이 온다.

미국 재즈의 살아있는 전설, 윈튼 마살리스와 그가 일궈낸 뉴욕 재즈의 심장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의 24년 만의 귀환이다. 재즈 거장의 숨결과 빅밴드  
최정예 멤버들의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들이 뿜어내는 자유롭고 생생한  
사운드가 무대를 뒤덮는 순간, 잠시 착각해도 좋다. 지금 여기가 뉴욕의 밤이라고.





## 뉴욕 재즈를 정의하는 가장 완벽한 앙상블

그래미 어워드 9회 수상(5년 연속), 그래미 역사상 최초의 재즈·클래식 부문 동시 석권, 재즈 아티스트 최초의 풀리처상 수상까지. 미국 재즈계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거장이자 그 자체로 재즈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인 윈튼 마살리스. 뉴욕 재즈의 본진 '재즈 앳 링컨센터'의 창립자이면서 예술감독이기도 한 그가 자신이 이끄는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와 함께 LG아트센터 서울 무대로 돌아온다.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큰 호응을 얻었던 윈튼 마살리스가 15인조 빅밴드 편성으로 한국 관객들을 만나는 건 무려 24년 만이다.

재즈의 본고장 뉴올리언스의 명문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여섯 살에 트럼펫을 잡고 열네 살에 데뷔한 윈튼 마살리스는 폭넓은 테크닉, 명료한 음색,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음악성으로 마일스 데이비스 이후 가장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재즈계의 존경과 위상은 단지 뛰어난 연주력에만 머물지 않는다. 1987년 뉴욕 링컨 센터에서 최초의 재즈 콘서트 시리즈를 시작하며 재즈를 클래식, 오페라와 동등한 예술 장르로 끌어올렸고, 이는 오늘날 뉴욕 재즈의 중심이 된 '재즈 앳 링컨센터'의 토대가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가 탄생했고, 그들은 전통에서 현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왔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협업으로 지난 37년간 세계 무대에서 재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세계 무대에서 언제나 '재즈가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를 증명해온 윈튼 마살리스와 '재즈 앳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즉흥과 리듬, 다이내믹한 앙상블, 재즈가 품은 자유로움까지. 오랜 시간 쌓아온 그들의 음악 세계는 세대를 초월하여 재즈의 에너지와 본질을 가장 순도 높게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Nine-time Grammy Award winner and the first jazz artist to receive the Pulitzer Prize, Wynton Marsalis—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American jazz—returns to the stage at LG Arts Center SEOUL leading the 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Following his sold-out 2023 performance at LG Arts Center SEOUL to an enthusiastic response, Marsalis comes back with his full 15-piece big band, marking his first such appearance in Korea in 24 years. This upcoming performance will showcase the 37-year legacy of an orchestra built on tradition and innovation, which has redefined the horizons of jazz through boundary-crossing collaborations on global stages.

## JAZZ AT LINCOLN CENTER ORCHESTRA WITH WYNTON MARSALIS



“거대한 엔진처럼 유려하게 흐르는 스윙과 정교한 앙상블  
그리고 품격있는 즉흥이 어우러진 우아한 무대”

The Guardian

©LawrenceSumlong



©2024 Jazz at Lincoln Center



# 라베크 자매 Two Pianos

## - 필립 글래스의 장 콕토 3부작

'오르페', '미녀와 야수', '앙팡테리블'

Philip Glass: Cocteau Trilogy  
by Katia and Marielle Labèque

4.26 Sun 5pm

LG SIGNATURE Hall

VIP 120,000 R 90,000 S 70,000 A 5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9년생부터)

소요시간 | 2시간 (휴식 1회 포함)

Age Guidance | 8+ (born in 2019 or earlier)

Duration | 2h with one interval

깜깜한 무대 위, 은은한 빛을 내는 샹들리에 아래 두 대의 피아노만이 놓여 있다. '미니멀리즘의 거장' 필립 글래스와 '현존 최고의 피아노 듀오' 라베크 자매, 그리고 20세기 초의 '르네상스맨' 장 콕토의 예술 세계가 한자리에 어우러진다. 이제 네 손이 건반 위에 올려지면, 스크린 없는 영화가 시작된다.





©Pauline Delassus



## 반세기 넘게 정상의 자리에서 빛나온 전설적인 자매 피아노 듀오

카티아와 마리엘 라베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노 듀오이자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자매는 1970년대 초, 채 스무 살도 되기 전에 첫 음반을 낸 뒤 바흐와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레퍼토리에서 재즈, 팝, 록, 미니멀리즘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듀오 피아노의 지형을 바꿔 놓았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갈라 콘서트와 빈 필하모닉의 쇤브룬 궁전 여름밤 콘서트에서는 수만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고, 2015년 필립 글래스가 이들을 위해 작곡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이중 협주곡은 구스타보 두다멜 지휘의 LA 필하모닉 초연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70대의 나이에 도 전 세계를 오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는 라베크 자매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터치와 강력한 타건이 교차하는(The Guardian)" 연주를 통해 여전히 시대를 대표하는 듀오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 장 콥토에서 필립 글래스 그리고 라베크 자매

1960년대 중반 파리에서 수학하며 프랑스 문화와 장 콥토의 예술 세계에 깊이 매료된 필립 글래스는 훗날 콥토의 영화 '오르페', '미녀와 야수', '양팡테리블'에 자신의 음악을 입힌 오페라 3부작을 완성한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라베크 자매는 이 가운데 '양팡테리블'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으로 선보였고, 자연스럽게 세 작품을 하나의 공연으로 엮는 구상으로 이어졌다. 파리 필하모니에서의 초연을 위해 글래스와 오랫동안 협업해 온 마이클 리스만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3부작 편곡을 완성했고, '라이브 시네마'로 주목받는 연출가 시릴 테스트가 합류했다. 이렇게 콥토의 영화에서 출발한 선율과 리듬은 마치 카메라의 프레임처럼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하나씩 불러내고, 우리는 앉아서 듣기만 해도 스크린 한가운데를 통과한 듯한 깊은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공연이 끝나면 무대 위 거대한 상들리에의 잔광은 사라지지만, 라베크 자매의 연주는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Darius ALLARD-Philharmonie de Paris

## “마치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듯한 완벽한 호흡을 선보인다.”

The Times

Katia and Marielle Labèque are France's most celebrated piano duo, often hailed as "living legends." After releasing their first recording before the age of twenty, the sisters went on to redefine the landscape of duo piano performance, traversing genres from Bach and Mozart to jazz, pop, rock, and minimalism. They have captivated tens of thousands of listeners at landmark events such as the Berlin Philharmonic's Waldbühne Gala Concert and the Vienna Philharmonic's Summer Night Concert at Schönbrunn Palace. In 2015, *the Concerto for Two Pianos*, written especially for them by Philip Glass, received widespread acclaim at its premiere with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under the baton of Gustavo Dudamel. Now in their seventies, the Labèque sisters continue to travel the world and embark on new projects, reaffirming their status as one of the defining piano duos of our time. For the upcoming performance, they present three two-piano suites by Philip Glass from his operas based on Jean Cocteau's works, specially arranged for the duo and set against a dreamy scenography centered around a stunning chandelier.

PHILIP GLASS:  
COCTEAU TRILOGY BY  
KATIA AND MARIELLE  
LABÉQUE



©Umberto Nicoletti



# 다비드 바뱅 & 아드리앙 몽도 '피아노 피아노'

Babx(David Babin) & Adrien Mondot's 'Piano Piano'

10.15 Thu - 17 Sat

Thu-Fri 7:30pm / Sat 3pm

U+ Stage

All seats 60,000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9년생부터)

소요시간 | 1시간 (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born in 2019 or earlier)

Duration | 1h with no interval

This is no ordinary concert. As lyrical piano melodies unfold, mesmerizing juggling performances and cutting-edge visual art merge to expand across the stage. *Piano Piano* is a wholly new kind of live performance, born from the collaboration between French pianist David Babin and digital artist Adrien Mondot. Rooted in a friendship that began in Avignon over twenty years ago, the two artists have forged their own artistic language by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music and visual art. *Piano Piano* captures their synergy at its most concentrated, inviting audiences to transcend passive listening and immerse themselves in an experience that awakens every sense.

## 새로운 예술 언어를 향한 콜라보레이션

이곳에서 펼쳐지는 연주회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눈을 땔 수 없는 저글링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비주얼 아트가 무대 위를 뿔어나간다. 프랑스 출신의 피아니스트 '다비드 바뱅'과 디지털 아티스트 '아드리앙 몽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라이브 퍼포먼스, '피아노 피아노'의 시간이다.

20여 년 전 아비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을 향한 존경 속에서 깊은 우정을 쌓아오며, 음악과 시각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신들만의 예술 언어를 구축했다. '피아노 피아노'는 이들의 시너지를 가장 밀도 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단순히 듣고 보는 차원을 넘어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는 경험으로 관객을 이끈다.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바뱅은 이번 공연에서 2023년 발매한 피아노 솔로 앨범 '피아노가 있는 집'을 라이브 연주로 선보이고, 디지털 예술 선구자 아드리앙 몽도의 정교한 기술은 바뱅의 음악과 실시간으로 맞물리며 압도적인 비주얼을 만들어낸다. 서로의 다른 감각이 결합되며 즉각적으로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내는 무대 위, 음악은 더 이상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시각이 되었다가 공간이 되고, 이내 또 하나의 다른 감각으로 확장된다.



## 디지털 콘서트홀에서 스트리밍으로 만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맞춤형 스트리밍: 최신 TV와 모바일 기기를 위한 앱을 사용하시면 집에서도, 이동 중에도 - 언제 어디서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체험해 보세요  
digitalconcerthall.com

## 2026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Seoul Philharmonic Orchestra's Rush Hour Concert

6.23 Tue 7pm

LG SIGNATURE Hall

R 50,000 S 30,000

\* 공연 세부 정보 및 티켓 오픈 일정은 추후 공개됩니다.

관람연령 | 8세 이상 (2019년생부터)

소요시간 | 1시간 15분 (휴식 없음)

Age Guidance | 8+ (born in 2019 or earlier)

Duration | 1h 15min with no interval

### 하루의 끝, 도시의 호흡을 바꾸는 음악

평일 저녁 가장 지친 시간, 가파른 숨을 잠시 고르고 공연장 좌석에 편히 앉아보자. 바로 그 순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시작된다. 2022년부터 매년 LG아트센터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음악의 위안으로 바꾸는 평온한 저녁 시간을 선사해 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수준 높은 연주와 친근한 분위기가 함께하는 이 무대에서, 클래식 음악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2026년 시즌에도 퇴근 후 당신의 저녁을 채워줄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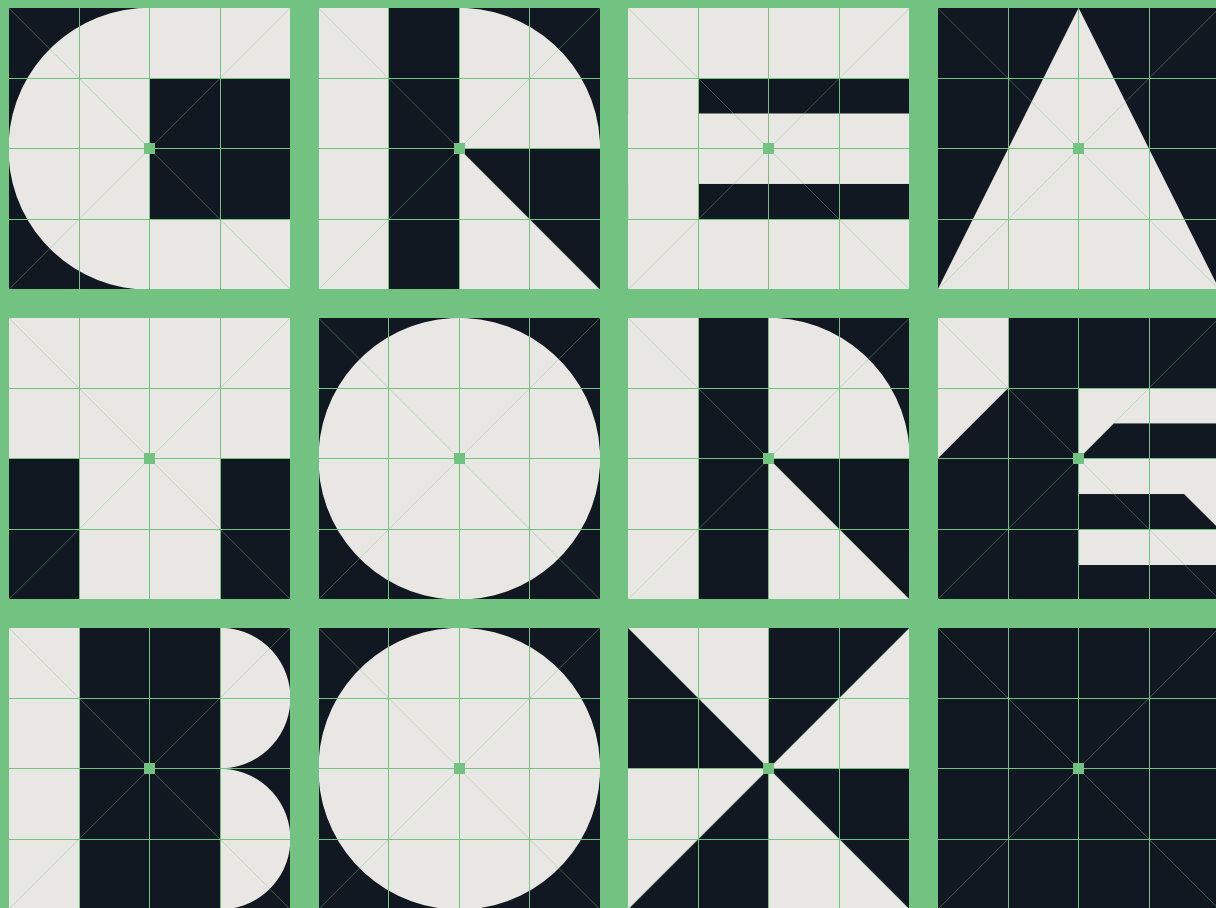
At the end of a weary weekday, take a moment to breathe and settle into your seat at the LG SIGNATURE Hall. In that very instant,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begins its performance. Since 2022, the SPO's 'Rush Hour Concert' series at the LG Arts Center SEOUL has served as a serene evening sanctuary, transmuting the day's stress into the solace of music. On this stage, where the world-class artistry of Korea's premier orchestra meets a welcoming atmosphere, classical music becomes an intimate companion rather than a distant masterpiece. For the 2026 season, a newly curated program awaits to enrich your evening after work.





# CREATOR'S BOX

크리에이터스 박스



## Uncover the CREATOR's hidden project at BLACKBOX!

2023년 시작된 'CREATOR'S BOX(크리에이터스 박스)'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과 공연장의 경계 없는 협업 프로그램이다. LG아트센터 서울의 블랙박스 공연장, U+ 스테이지는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 그 안에서는 흥미로운 시각, 다양한 시도, 새로운 관객 경험이 끊임없이 확장된다. 과연 이 '박스' 안에 또 어떤 프로젝트가 숨어 있을지 기대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해 보자.

Launched in 2023, the 'CREATOR'S BOX' is a collaborative initiative breaking the boundaries between diverse creative disciplines and the performative space. Using U+ Stage—LG Arts Center SEOUL's black-box theatre—as a dynamic catalyst, this project connects creators with audiences to explore uncharted artistic territories through fascinating perspectives and bold experimentation that leads to the expansion of audience experience. Prepare to be surprised by what lies hidden within this 'box,' and join us as we witness the daring journeys of the creators who will continue to redefine this stage.

2026

Coming soon

2025

piknic 무성영화극장

piknic, silent film & live

2025.10.28 – 30

CREATOR. 찰리 채플린 & 까데호, 버스터 키튼 & 윤석철트리오,

오즈 야스지로 & 데이브유 아코디언 재즈밴드,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 & 송남현 x 만동

무성영화 거장들의 대표적인 작품과 현대 뮤지션들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함께 만나는 공연



2024

'P와 함께 춤을'

Dancing with P

2024.9.28 – 10.6

CREATOR. 크리에이티브 VaQi (연출 이경성)

피나 바우쉬의 예술 세계를 학습한 AI 마스터 'P'와 함께  
그녀의 창작 방식, 그리고 그 너머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연극



2023

이진엽 연출 '차차차원이 다다른 차원'

Beyond Diverse Dimensions

2023.4.15 – 23

CREATOR. 코끼리들이 웃는다 (작 배해률, 연출 이진엽)

무대와 객석 구분 없이 관객과 배우가 상호 소통하며 함께  
극을 만들어가는 이머시브형 송쓰루(sung-through) 공연



'로미오와 줄리엣 and more'

Romeo and Juliet and more

2023.9.20 – 23

CREATOR. 연극연습 프로젝트 (연출·안무 모어(毛魚) 모지민, 배호섭)

발레를 전공한 드랙 아티스트 '모어(毛魚)'가 그려낸 아름답고,  
낮선 줄리엣의 이야기





MS JACKSON presents

전 세계가 열광한 이머시브 화제작  
〈슬립노모어〉 오리지널 내한!

PUNCHDRUNK'S  
**SLEEP NO MORE**  
슬립노모어

MS  
JACKSON

2025. 07. 24 ~ OPEN RUN

매키탄 호텔 (서울 중구 퇴계로 212)



티켓 예매

## LG아트센터 서울 향기 136

136 Fragrance of LG Arts Center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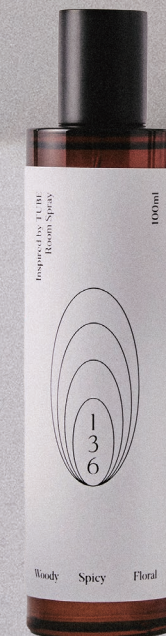
Inspired by TUBE

WOODY \* SPICY \* FLORAL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튜브(TUBE)에서 영감을 받은 '향기 136'은  
무한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6 디퓨저 250ml



136 룸스프레이 100ml



136 미니어처 세트 **NEW**  
캔들 15g + 디퓨저 50ml



136 캔들  
본품 콘크리트 케이스 + 향초 40g  
리필 향초 40g x 2ea \*별도 판매

오프라인 구매처  
LG아트센터 서울 2층 라코펠라  
(운영시간 11:00-20:00 / 월요일 휴무)

온라인 구매처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

가전한데서



# LG SIGNATURE 홀

LG SIGNATURE 홀은 연극, 무용,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335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장르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음향 환경과 어떤 작품도 구현할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있으며, 파리 오페라 발레, 피나 바우쉬,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 공연예술계를 이끄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찾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LG SIGNATURE Hall is a 1,335-seat multipurpose theatre designed to accommodate a wide spectrum of performing arts, including theatre, dance, musicals, classical music, and concerts. With an acoustic environment that adapts flexibly to each genre and a stage capable of supporting productions of any scale, the Hall has become a destination for world-renowned artists and companies such as the Paris Opera Ballet,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and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Sponsored by **LG SIGNATURE**

LG SIGNATURE 홀은 본질의 가치(The Art of Essence)를 지키며 삶이 예술이 되는 경험을 제시하는 LG전자의 초프리미엄 가전 LG SIGNATURE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연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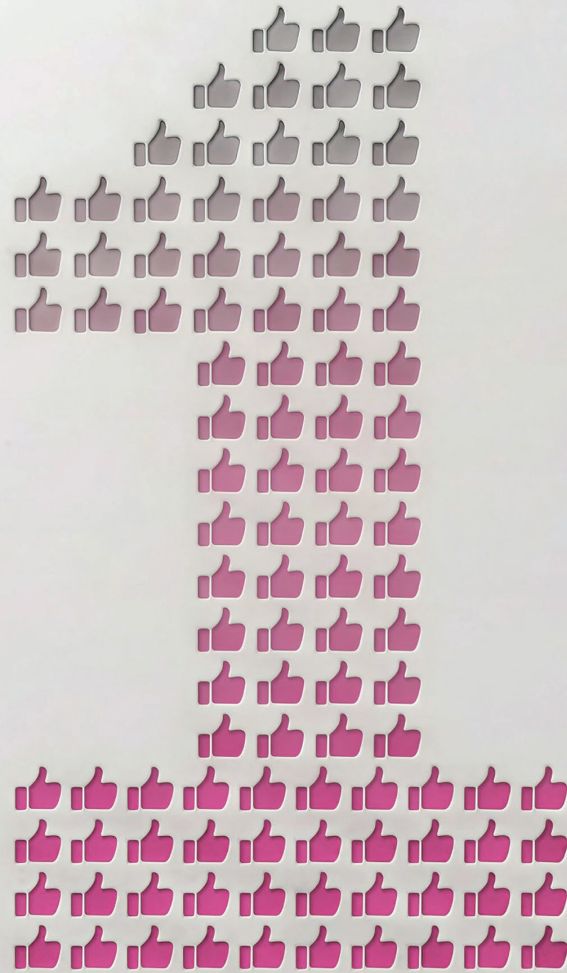
©배지훈

가전에서 홈스타일까지  
한 번에 맞추다.

라이프스타일플랫폼  
**LGE.COM**







# 고객님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KNPS) 1위

★★★★★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1위

★★★★★  
국가고객만족도  
(NCIS) 공동 1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만족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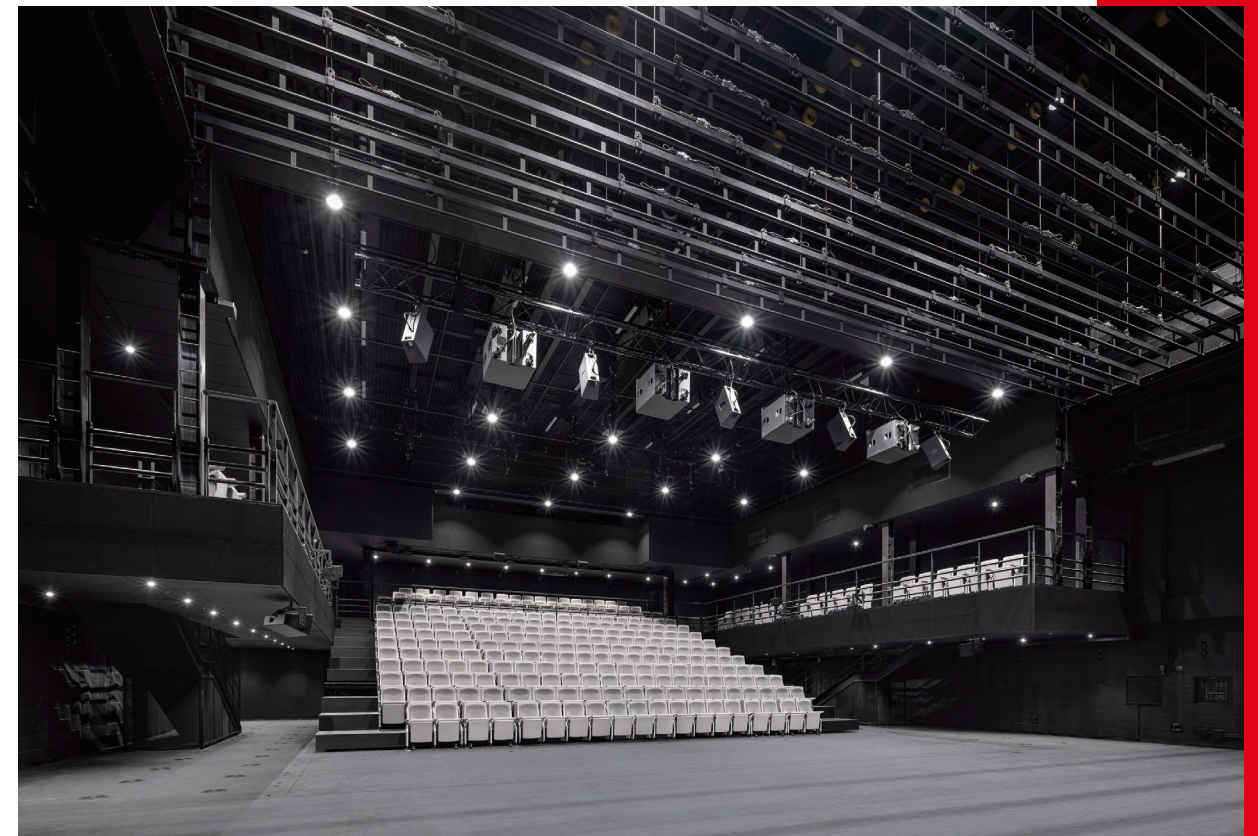
## U+ 스테이지

U+ 스테이지는 아티스트의 의도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최대 365석 규모의 블랙박스 공연장입니다. 객석이 무대 정면을 바라보는 프로시니엄 구조는 물론, 원형 무대, 돌출 무대 등 유연하게 무대와 객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극, 무용,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예술적 시도와 아티스트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U+ Stage is a black-box theatre with a flexible capacity of up to 365 seats, designed to transform freely between multiple configurations. From a traditional end stage to thrust, arena, or traverse setups, the venue allows the stage and audience layout to be adjusted with exceptional versatility. Accommodating a wide range of genres including theatre, dance, and concerts, U+ Stage offers boundless possibilities for artistic experimentation and creative expression.

Sponsored by **U+**

U+ 스테이지는 새로운 형식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고객 일상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 둘러만 보아도 '작품'이 되는 공간 LG아트센터 서울 건축 이야기

아직 공연장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그저 이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작품'은 시작된 것 같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LG아트센터 서울은 그의 철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Even before entering the performance hall, simply walking through the building makes  
you feel as if the 'artwork' has already begun.  
LG Arts Center SEOUL,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rchitect Tadao Ando,  
is a space where you can fully immerse yourself in his architectural philosophy.

2022년 2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서 운영된 LG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여 'LG아트센터 서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관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총 6년 4개월에 걸쳐 완성한 LG아트센터 서울은 두 개의 공연장과 스튜디오, 리허설룸 등을 보유한 공연, 교육 공간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안도 다다오는 1995년 건축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 대가로, 투명한 소재인 유리나 노출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간결하면서도 강인한 존재감을 표현한다. 대표작으로는 물의 교회, 빛의 교회,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등이 꼽히며, 국내에서도 뮤지엄 산, 본태박물관, 글라스 하우스 등을 통해 그의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다.

안도 다다오는 상하이 폴리 씨어터, 서울 JCC크리에이티브센터 등의 공연장도 설계했다. 그중 LG아트센터 서울은 건축에 자연이 녹아드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으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도 다다오는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에 직접 방문하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밀도 높은 건축물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In October 2022, LG Arts Center began a new chapter in its journey, reopening in Gangseo-gu under the name 'LG Arts Center SEOUL.' Designed by world-renowned architect Tadao Ando, LG Arts Center SEOUL serves as a vibrant cultural space featuring two performance halls, studios, and rehearsal spaces, while also standing as a "work of art" in its own right. Ando is celebrated for his signature use of glass and exposed concrete to create simple yet powerful designs, with notable works such as the Church on the Water, and the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Fully reflecting Ando's philosophy of harmonizing nature with architecture, LG Arts Center SEOUL was honored with the Grand Prize at the 41st Seoul Architecture Awards. Upon his visit in 2023, Tadao Ando described it as "a space with a depth and richness that surpasses even my own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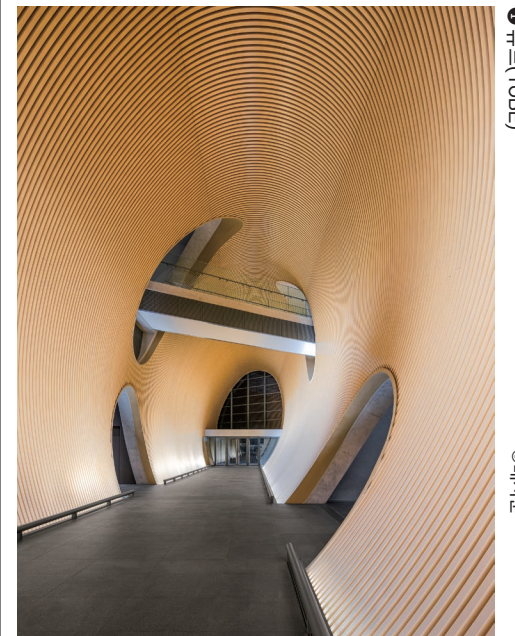
LG아트센터 서울의 세 가지 건축 컨셉  
The design is based on three concept

튜브(TUBE)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  
게이트 아크(GATE ARC)

① 튜브(TUBE)는 LG아트센터 서울의 지상층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원형 통로이다. 높이 14m, 길이 80m에 달하는 튜브를 사이에 두고, 동편에는 공연장과 교육 시설이, 서편에는 LG디스커버리랩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남측에는 LG사이언스파크가, 북측에는 서울식물원이 자리 잡으며, 단순 이동 통로가 아닌 인간, 예술, 과학, 자연을 잇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② 안도 다다오의 시그니처 '노출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는 메인 로비에서 게이트 아크(GATE ARC)를 만날 수 있다. 커다란 곡선 형태인 이 벽은 2개의 공연장을 감싸는 70m의 길이, 객석 1층부터 3층까지의 높이 20m로 세워졌다. 특히 약 13도 기울어진 모습은 이곳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고개 숙여 환영의 인사를 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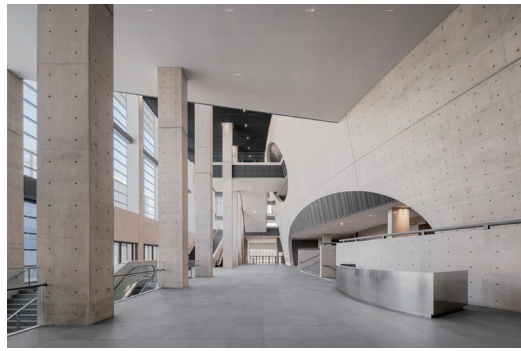
③ 길이 100m에 달하는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은 지하부터 지상까지의 공간을 층으로 연결한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방향을 전환하면서 다양한 장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공연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사용,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각 층의 공간미를 살려볼 수 있도록 했다.



① 튜브(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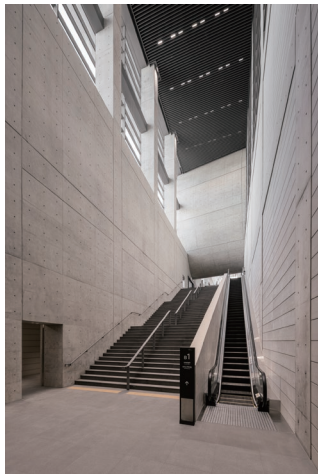
©배지훈





② 게이트 아크(GATE ARC)

©배지훈



③ 스텝 아트리움(STEP ATRIUM)

안도 다다오는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언제나 형태 이상의 정신을 강조한다. LG아트센터 서울을 설계할 때 역시 각각의 공간이 이동 동선 이상의 가치를 지니길 원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감동을 공유하는 곳, 공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교차를 이루면서 신선한 자극을 주는 곳, 그렇게 방문한 이들의 마음에 평생 기억될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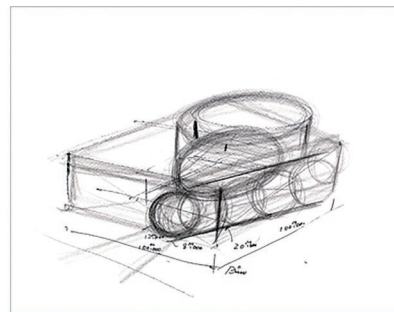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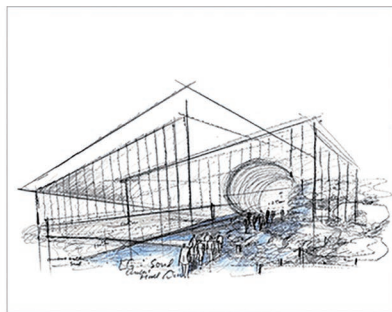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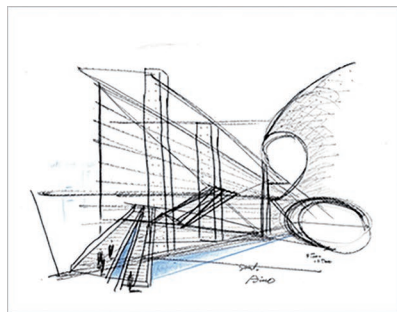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축가의 마음까지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길 바란다.

Tadao Ando always emphasizes the spirit beyond form in explaining his architecture, and this was also his primary goal when designing LG Arts Center SEOUL. Ando envisioned each place to hold value beyond its function—a place where people gather to share emotions and conversations, where diverse individualities blend and intersect to spark a fresh energy, inspiring everyone who visits.

We invite you to take a moment during your visit to LG Arts Center SEOUL to connect with the architect's vision.

**“여기밖에 없는 공연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각각의 공간이 개성을 가지고 상호 교차하면 여러 요소가 충돌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을 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

**I envisioned a performance space like no other—**  
**a place where each space holds its own uniqueness, blending and intersecting**  
**with others to spark a fresh energy.**  
**I hope that this space becomes an inspiration to everyone who steps inside.**  
 Architect Tadao Ando



안도 다다오 스케치 ©Ando Tadao

# 건축 오디오 투어

## Architecture Audio Tour

LG아트센터 서울을 건축 오디오 투어로 만나보세요.

누구나 셀프로 감상할 수 있는 건축 오디오 투어를 통해 공연장 건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부터 건축가의 세 가지 디자인 컨셉 그리고

공연장과 전시 공간 및 루프탑까지.

여유롭게 거닐며 마주하게 되는 8개의 스팟에서 박해수 배우의 내레이션으로

한층 더 깊어진 공간의 매력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Embark on an architecture audio tour to experience the compelling spatial stories contained within LG Arts Center SEOUL.

As you take a leisurely stroll through the space, you will encounter eight self-guided tour spots. Actor Hae-soo Park's narration offers friendly insights, allowing you to delve deeper into the unique charm of each area.

주최·기획 | LG아트센터

주관 | 정림건축문화재단

글 | 건축가 배윤경

내레이션 | 배우 박해수

오디오 투어 한국어



Audio Tour in English



©배지훈

